



교육연합신문



2026년 5월 6일 (수) 제443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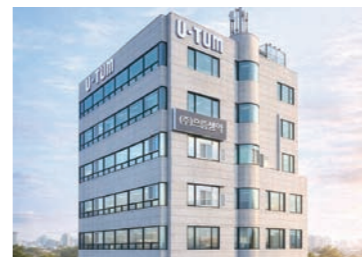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3회 부산광역시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 “세대와 지역을 잇는 통합형 스포츠” ▶4면
부산에서 전국 브리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대회가 열렸다. 제3회 부산광역시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가 지난 4월 20일 농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브리지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시브리지협회가 주관했다.



광양중앙초, 어린이날 맞이 행사 ▶7면
광양중앙초등학교(교장 최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행사’를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교학생회가 주관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학생 주도로 진행됐으며...



한의학품 전문 기업 으뜸생약 ▶16면
한약이 ‘경험의 영역’을 넘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약품으로 재정의되는 흐름의 중심에 으뜸생약이 있다. 한의학품 전문 기업 으뜸생약은 전통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 지표 성분 분석, 안전성 검증,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정근식 서울교육감 “서울교육 변화·혁신 이끌 것”

“시민의 엄중한 명령”... 원팀 강조하며 본선 승리 의지 밝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된 뒤 서울교육 혁신과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는 단일후보 확정 임정문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저를 선택해 준 시민 참여단과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결정은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에 함께한 후보들의 철학과 비전, 교육에 대한 진정성은 서울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쟁은 끝났지만 목표는 하나이며, 모든 가치를 모아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원팀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서울교육 비전과 관련해 “모든 학생이 출발선이 아닌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교육, 배움의 속도가 아닌 성장의 방향이 존중받는 교육,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오늘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결과로 증명하고, 겸손하게 의견을 듣되 책임 있게 교육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김석준 부산교육감, 출마선언 “정상화 넘어 미래전환”

“부산교육 기반 세우고, 도약 이루고, 정상화 이끈 검증된 후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김 교육감은 4월 23일 오전 11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1 삼성빌딩 2층 ‘김석준 캠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 동안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이제는 미래로의 대전환을 위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선 3, 4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었다”며, “특히 재선기를 통해 교육감으로 복귀한 뒤 지난 1년간 교사와 교육청 직원, 교육가족의 헌신적 노력과 소통으로 혼란에 빠져 있던 부산교육을 정상화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9년의 부산교육을 ‘기반 구축(1기)-도약(2기)-정상화(2.1기) 시기’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4년을 ‘부산교육 미래 전환기’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년간 부산교육의 기반을 만들고 도약을 이뤘

으며, 최근 1년간은 형클어진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제는 그동안 축적한 여러 성과와 경험을 쏟아부어 부산교육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고, 미래 교육 전환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윤영 기자 juy@

“한예종 이전, 지역·국가 공생의 새로운 출발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예비후보, 이전 추진 환영... 국가 균형발전 기회균등 실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이전 추진과 관련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4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한예종 이전은 단순한 학교 ‘공간 이동’이 아니라 ‘기회의 재배치’를 다시 묻는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예술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좇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면서, “국립 교육기관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교육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예종이 이전하게 되면 교육·창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대학원 과정 설치와 관련해



“예술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재를 길러내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학생과 수도권의 우려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러한 우려는 이전을 막을 이유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과

제”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다독다독 경기독서’ 추진

12년 독서이력제로 문해력 회복 시 플랫폼 기반 진로 연계 독서교육 강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4월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12년간 100권 이상 독서를 기록·관리하는 ‘다독다독 경기독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영상과 짧은 텍스트 중심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책임지는 독서 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스마트 기기 보급 등 인프라는 갖췄지만 콘텐츠와 운영이 부족하고, 사서교사 배치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독서와 문해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된 성교육 도서 폐기 사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표현과 선택의 자유가 위축되는 반교육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핵심 정책으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읽은 100권 이상의 독서를 12년간 기록·관리하는 ‘독서이력제’를 제시했다. 그는 “AI 기반 플랫폼을 통해 독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진

또한, “중이책 중심 독서와 AI 기반 진로 계획을 병행해 학년별로 적용하고, 독서 기록과 활동 분석이 연계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학습의 질과 깊이를 함께 높여겠다”라고 설명했다.

김병선 기자 kbs@

“학교 밖에서도 이어지는 배움의 권리 보장할 것”

임병구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고립 청년 학교 밖 청소년과 ‘직설 간담회’ 개최

임병구 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25일 학교 밖 청소년 및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과 함께 인천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 ‘임병구의 학교가다’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과 교육감 예비후보가 가치(Value), 미래를 다룬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 체계에서 소외됐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소통 행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보의 격차 및 접근성 부족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위축 ▲다양한 배움의 공간 필요성이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임병구 예비후보는 “학교를 나가는 순간 교육



행정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현행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교육의 의지를 밝혔다. 임병구 예비후보는 “오늘 들은 ‘아무 말’들이 사실은 인천 교육을 바꿀 가장 소중한 ‘정답’이었다”며, “특히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병구의 ‘학교가다’는 단순히 학교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모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용섭 기자 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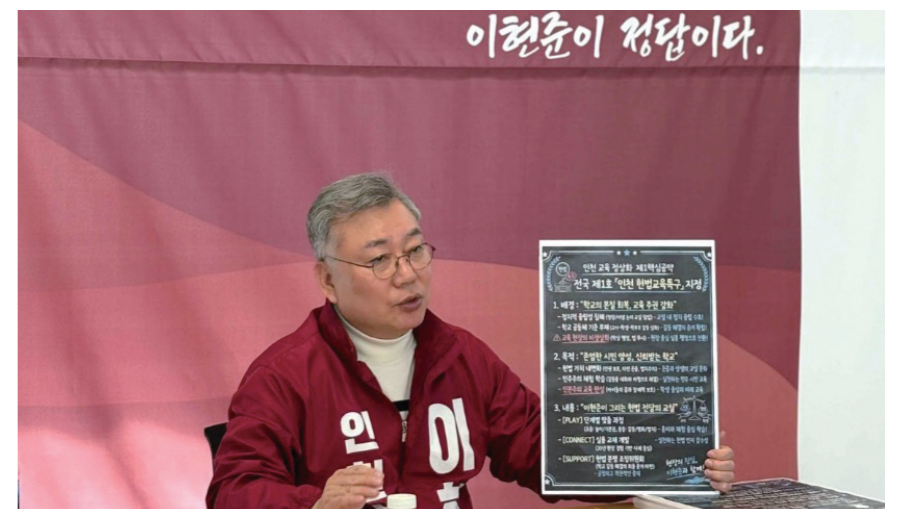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인천교육 대전환 시작”

35년 교육 현장 경험으로 헌법 가치와 교육 정상화 위한 핵심 공약 발표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현준 예비후보가 헌법 가치와 교육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현준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년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핵심 공약과 지역 맞춤형 정책, 교육 적폐 청산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인천 교육의 정상화는 무너진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아이들의 정당한 예산을 되찾는 데서 출발한다”며 헌법 정신 회복과 교육재정 확충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인천 헌법교육특구’ 지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교 내 정치적 편향과 이념 갈등을 차단하고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단계별 맞춤형 헌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헌법 인지 감수성’ 교재를 보급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교권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이른바 ‘김동욱 선생님법’ 제정을 통해 특수교원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현준 예비후보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용 행정으로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헌법 가치 위에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부산시의회, 추경예산안 18조 7634억 의결

교육청 추경 3.3% 증액 5조 7156억 원... 민생경제 안정·교육격차 해소 중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진)는 지난 4월 27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8조 2,124억 원) 대비 5,510억 원(3.0%) 증가한 18조 7,634억 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5,317억 원) 대비 1,839억 원(3.3%) 증가한 5조 7,156억 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에서 2억 원 증가한 18조 7,634억 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억 1,200만 원 증액 반영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 5,300만 원, 고유가 부담경감 화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진

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 ▲1,800만 원, 농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7,249만 원 등을 삭감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행비용 8,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영 운영 부대비 1억 8,500만

원 등에 증액 조정했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교육청의 제출안과 같은 5조 7,156억 원으로 세입 및 세출부문 모두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다.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민생경제 안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된 이번 예산이 생활 현장 곳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 엄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시급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오규 기자 hog@**

社說

교육감 선거, 정치 이념을 넘어 교육 행정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매년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정치가와 이념가들을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고, 오직 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한 교육 전문가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할 때다.

판적 사고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차기 교육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육행정가 출신이어야 한다. 교육청이라는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일선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안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이 교육감이 될 경우, 조직 장악력 부족으로 인한 혼선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간다. 정치권의 입김이 교육을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행정 전문가가 소신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연하기보다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갖춰야 한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설 수 있도록 문해력의 뿌리인 고전 읽기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 과학 등 기초 학문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질문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교육감 자리에 정치적 야욕을 가진 정치거나 특정 이념에 편향된 인사가 들어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며, 학생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편향된 이념 교육은 아이들의 비

결국 핵심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다. 진정한 교육감이라면 눈앞의 지지율에

교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이번 선거가 정치색을 빼고 교육의 본질과 행정의 전문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홍제의 목요일칼럼

당신의 수업을 어떻게 기억할까

초등학교는 가장 순수하게 친구를 만나는 시기이다. 네이버 '동창 찾기' 밴드로 '반갑다. 친구야'를 외치며 한동안 활발하던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한동안 시들해졌다. 그러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 늦바람이 불었는지 모임에 꼭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오랜만에 본 동창들은 부쩍 늙어 보였다. 자신도 늙었다는 생각이 하지 못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았다. 유난히 장난을 좋아했던 친구 하나가 불쑥 말을 건넸다. "야, 우리 솔직한 수업 내용 기억나?" "근데 말이야, 나를 무시하던 그 선생 표정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서 형성되는 태도와 감정의 축적이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학생은 무엇을 배웠는지는 잊어도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는 오래 기억한다는 점이다. 존중받았던 순간은 자존감을 키우지만 무시당한 경험은 마음 깊은 곳에 화상으로 남는다. 학생은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대우받았는지를 기억한다. 교사가 하는 그림에 대한 칭찬이 화가를 만들고 글쓰기에 대한 칭찬이 작가를 만들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과 무시하는 말은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 오늘날 학교 현장은 여전히 성취와 경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학생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다. 오늘날처럼 경쟁과 비교가 심화된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이 쉽게 위축되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쉽다.

다.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그 속에서 한 학생이 모욕을 느꼈다면 그 수업은 실패한 것이다. 수업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 잊힐 수 있다. 하지만 교실에서 느꼈던 감정은 한 사람의 삶에 오래 남는다. 교육의 진정한 성과는 시험 점수가 아니다. 학생의 마음속에 남겨진 기억이다. 교사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모르냐는 말 한마디가 어떤 학생에게는 질문할 용기를 영영 빼앗는다. 반대로 '좋은 질문이네'라는 짧은 인정은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다.

70년대 학교는 폭력의 장소였다. 대나무 뿌리, 당구 큐대, 봉걸레, PVC 등 도구 종류도 많았다. 엉덩이나 손바닥이 주요 대가 장소였다.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시절의 다양(?) 추억을 깔깔거리며 이야기했다. 교실에 있는 나로서는 함께 웃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졸업을 하면 대부분을 잊는다. 하지만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상처'는 잊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지만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한 학생의 인생 방향이 단 한번의 인정과 격려로 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존재여야 한다. 우리는 좋은 수업은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학생에게 남는 것은 설명의 완벽함이 아니라 태도의 진실함이

성적표는 몇 년 후 사라지지만 교실에서 받은 감정은 수십 년을 버틴다. 그 감정은 또 다른 사회로 반전한다. 동창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질문으로 가슴에 남는다. 선생님의 오늘 수업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김홍제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작은 학교들이 모여 큰 행복 만들어요

보성교육지원청, 군 내 초등학교·유치원 연합 운동회

지난 4월 29일 평소 조용하던 벌교스포츠클럽 운동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보성군 내 4개 초등학교(낙성초, 벌교중앙초, 조성초, 조성남초), 유치원에서 모

인 꼬마 손님들이 주인공이다. 전교생 6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 친구들이지만, 이날만큼은 백명이 넘는 친구와 함께하는 대규모 운동회의 주인공이 됐다.

처음 보는 다른 학교 친구의 모습에 잠시 낯을 가리던 것도 잠시,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공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운동장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협동 게임이었다. 커다란 공을 함께 밀고, 장애물을 넘으며 아이들은 승패보다 더 소중한 '배려'와 '질서'를 배웠다. 고학년 형들은 어린 유치원 동생들의 손을 잡아주며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자처했다. 보성교육지원청은 5월 15일 권역별로 연이어 치루어질 한마음운동회 때도 작은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두수 기자 2580news@daum.net**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EdTech KOREA 2023 BM BUSINESS MODEL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목포조리과학고, 장만채 前교육감 초청 특강

"AI 시대, 인간 존엄성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한 미래 교육"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 목포조리과학고등학교는 4월 23일 장만채 前전라남도교육감을 초청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AI 시대의 대전환: 교육의 미래를 다시 쓰다'로, 급변하는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의 방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만채 前교육감은 'AI 기술의 공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일수록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성과 미래를 향한 도전 의식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한 학생은 "AI가 발전해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민 기자 2580news@daum.net

“2050 서비스 산업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박형준 부산시장,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정부 결단 촉구

“무너진 지역 의료 안전망 복원… 비수도권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조성해야”

한국서비스교육전문협회, 전국 서비스 전공 대학생 대상 KSEA 공모전

미래 서비스 산업을 이끌 인재를 찾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의 장이 열린다. 한국서비스교육전문협회(KSEA)는 4월 27일부터 전국 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50 서비스 산업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공모전을 공식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항공서비스를 비롯해 호텔, 관광, 비서, CS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획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AI시대 속에서 서비스 직무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미래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창의

적이고 실무적인 아이디어가 핵심 평가 요소다.

공모 주제는 ▲미래 서비스 산업 트렌드 예측 ▲AI시대 서비스 직무 변화 ▲항공·호텔·의료·비서 등 산업 확장 모델 ▲차별화된 고객 경험 및 하이엔드 서비스 기획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이를 바탕으로 1차 기획안을 제출하며, 본선 진출 시에는 PT 발표를 통해 자신의 전략을 직접 선보이게 된다.

진행 방식은 1차 서류 심사 와 2차 본선 발표로 나뉜다. 본선 PT는 오는 5월 27일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산업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들에게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미래 커리어를 설계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수상자에게는 KSEA 협회 공식 상장 수여되며,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약 100만 원 상당의 시상 및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협회 채널과 언론을 통한 홍보 기회까지 주어지며, 개인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사는 KSEA 협회 운영진과 서비스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획력이 요구된다.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이메일을 통한 기획안 제출과 네이버폼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한국서비스교육전문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미래 서비스 산업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다. 항공과 학생이라면 지금이 바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순간이다. 변화하는 하늘길 위에서, 서비스의 미래를 직접 그려볼 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병선 기자 kbs@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형준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정책결단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30일 시의 면담 재요청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와 현장 방문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330만 부산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지원 의지를 밝히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총사업비 4천 4억 원 가운데 90퍼센트(%)가 넘는 3천630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개인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50퍼센트(%)를 보전하는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 제언한 상태. 박형준 시장은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부산시의 수차례 면담 요

청마저 거절하며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손을 놓고 있다”라며, “침례병원 공공화는 무너진 지역 의료 안전망을 복원하고, 시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지방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만큼 정부도 즉각적인 결단을 해야 하며, 침례병원을 비수도권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백성연 기자 bse@

한글날 100주년 기념 ‘국민 참여 독서감상문 대회’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총 6,000여 명 시상 1등 3천만 원 상금 수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한글날 100주년을 기념해 국민 문해력 회복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대규모 전국 단위 공모전 ‘국민 참여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종의 나라, 책 읽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운동으로 기획됐으며, 세대별 참여

확대를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고 한글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는 총 6,000여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규모 공모전으로, 특히 일반·대학부 장원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부문별 시상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부는 ▲장원(1명) 3,000만원 ▲차상(1명) 1,000만원 ▲차

하(2명) 500만원 ▲우수(80명) 50만원 ▲가작(130명) 30만원, 고등부 【고등부】 ▲장원(1명) 500만원 ▲우수(40명) 30만원 ▲가작(90명) 20만원, 중학부 【중학부】 ▲장원(1명) 300만원 ▲우수(40명) 20만원 ▲가작(80명) 10만원, 초등부 ▲장원(1명) 도서상품권 100매 ▲우수(40명) 20매 ▲가작(80명) 10매 등이다.

공모기간은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접속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 도서는 김진명 작가의 역사 소설 세종의 나라(전 2권)로,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글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후원한다.

백은숙 기자 pes@

전남 화순고, 세월호 12주기 추모 캠페인

전남 화순고등학교(교장 김주봉)는 4월 16일 점심시간 교내 급식실 앞 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하는 ‘추모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화순고의 특색 교육활동인 ‘1-month, 1-event’ 4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직접 추모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와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는 취지다.

이날 화순고 교정은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물결로 가득 찼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각자 준비한 노란색 소지품이나 아이템을 착용하

고 등교하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학교 측은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며 추모의 뜻을 격려했다.

특히, 급식실 앞마당에서는 ‘세월호 삼행시 짓기’ 활동이 진행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세·월·호’ 세 글자에 희생자를 향한 미안함과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다짐을 진지하게 담았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기고

AI가 일하는 사회, 인간 역할의 재정의

‘혼자 남은 사장’ 회사가 던지는 경고

“그분이 아주 뛰어난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IT 혁신을 맡겨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우수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 기묘한 대화는 어느 기업의 채용 자문 현장에서 실제로 오간 것이다. 최고의 찬사가 되어야 할 ‘우수함’이 어쩌서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일까.

이 역설적인 경고는 AI가 일의 심장부로 침투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서늘한 미래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재 한 명이 조직을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단 한 명의 초우수 인재와 AI의 결합이 기존의 조직 체계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시대다. 어느 한 중견기업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증명한다. 소위 ‘천재’라 불리는 한 명의 인재가 투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그 기업은 인류가 수 세기 동안 정립해온 ‘고용’과 ‘협업’이라는 근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10명의 업무를 대체한 단 하나의 지능 그 인재는 부임 직후 회사의 모든 사무 공정을 현미경처럼 분석했다. 그리고 AI 기반의 가상 직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10명이 넘던 관리·사무직 부서는 순식간에 해체되었고, 사무실에는 단 한 명의 임원만 남게 되었다.

전화 응대는 남녀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상황에 맞게 톤을 조절하는 AI가 맡았고, 복잡한 문서 작성과 보고, 고객 소통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었다.

심지어 정기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한 세무 공무원들조차 AI의 완벽한 응대에 압도당했다. 수만

페이지의 회계 자료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AI 앞에서 인간의 추구는 무력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 기업은 효율화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AI 활용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은 사무직에 그치지 않았다. AI가 공정 설계와 로봇 제어를 직접 결합하면서 블루칼라 업무까지 빠르게 자동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불과 6개월 만에 ‘사장 혼자만 남은 회사’가 등장했다. 인간 직원이 사라진 자리를 무한한 지능과 지지 않는 기계가 채운 것이다.

‘AI 자기 복제’가 가져올 인재의 대홍수 이 이야기의 결말은 더욱 큰 충격을 안긴다. 그 초우수 인재는 결국 자신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한 이른바 ‘AI 자기 복제본’을 만들 어냈다. 이제 기업은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 검증된 인재의 사고 능력을 그대로 복제한 ‘가상 인재’를 도입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고 빠르며, 확장성 면에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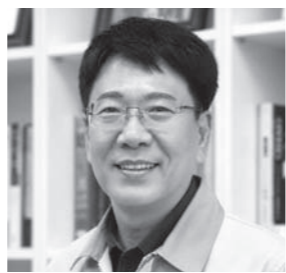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 한 명의 천재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천재를 본뜬 수십, 수백 개의 가상 지능이 동시에 일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이 사회 속에서 가져왔던 ‘희소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기술의 속도가 아닌, ‘사회적 준비’의 속도를 고민할 때 이 사례는 단순히 어느 효율적인 기업의 성공담이 아니다. AI가 가져올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 뒤에 숨겨진 ‘일자리 실종’과 ‘구조적 소외’를 예고하는 경고등이다.

국가 입장에서 기업 이익이 늘어 세수가 확보될지 모르나, 그 안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노동자들의 존재는 거대한 사회적 숙제로 남게된다.

이제 우리는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도구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인간을 재정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AI 시대에 인간이 준비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다. AI가 흉내 낼 수 없는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그리고 ‘현장과의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로 거듭나는 것이다.


AI 사회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알고리즘이 아니라, 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재설계하는 사회적 합의의 속도다. 미래의 공장은 AI와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와 리더들의 마지막 책무일 것이다.



■ 오양환

- ◇ (유)코아시스템 CEO
- ◇ 경남대학교 AI SW융합전문대학원 원우회장
- ◇ (사)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부산경남 지회장
- ◇前人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 ◇前창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 ◇일본 동경 CoreJump SW사 근무
- ◇창녕군 남지초 중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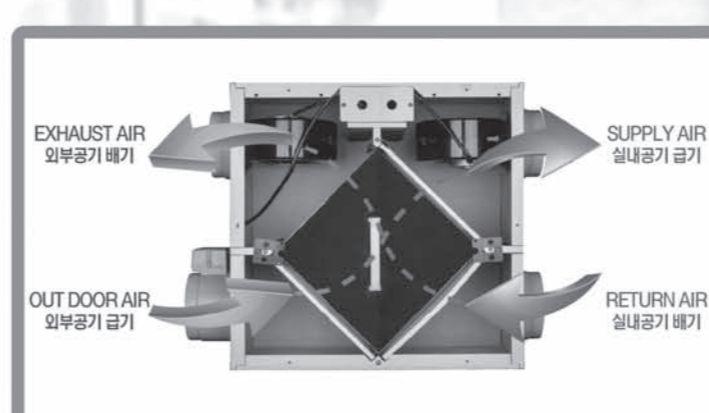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EXHAUST AIR
외부공기 배기



OUT DOOR AIR
외부공기 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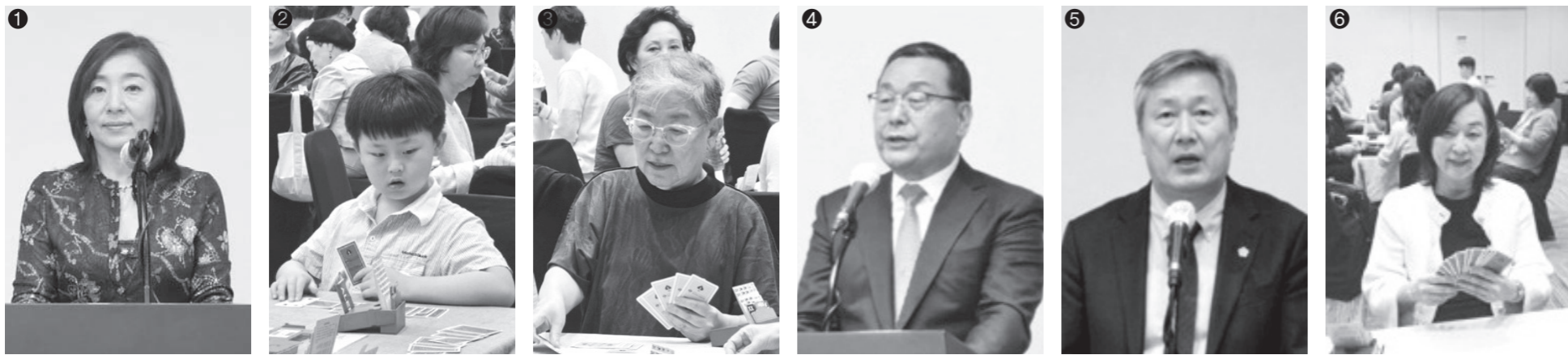
SUPPLY AIR
실내공기 배기

RETURN AIR
실내공기 배기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1 한국브리지협회 김혜영 회장 2 세종 지역의 박준모 학생(2018년생)은 이번 대회의 최연소 참가자. 3 경기 지역의 배경희 씨(1946년생)는 최고령 참가자. 4 부산광역시 체육회 박기서 상임 부회장. 5 부산광역시 브리지협회 백성언 회장. 6 서울지역 브리지 오해민 회장.

“세대와 지역을 잇는 통합형 스포츠”

전국 브리지 동호인 한자리에... 제3회 부산광역시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 성황

부산에서 전국 브리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대회가 열렸다. '제3회 부산광역시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가 지난 4월 20일 농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브리지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시브리지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실력 수준에 따라 A·B 두 개 색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A색션은 KCBL 마스터포인트 30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B색션은 30점 미만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다양한 실력대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대회에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세종, 광주, 전북, 경북,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 44개 페

어, 88명의 선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지역을 넘어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경쟁의 의미를 동시에 더했다.

특히, 세종 지역의 박준모 학생(2018년생)은 이번 대회의 최연소 참가자로, 어머니와 함께 페어를 이뤄 출전해 큰 관심을 모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착한 판단력과 파트너와의 호흡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관람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냈으며, 브리지가 세대 간 소통과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스포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경기 지역의 배경희 씨(1946년생)는 최고령 참가자로 출전해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안정

된 플레이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브리지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스포츠로서의 매력을 한층 부각시켰다.

부산 지역에서는 명진중학교가 브리지 저변 확대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명진중학교는 지난해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던 브리지를 올해부터 스포츠클럽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양태양·공예준 학생 페어가 B색션 2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브리지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해 부산 교육계와 연계한 활성화 대책 마

련에 힘을 신기로 했다.

학교 스포츠클럽 및 방과후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는 체육계 및 브리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기서 상임부회장은 “브리지는 전략과 집중력, 소통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지적 스포츠”라며, “시민 체육 활성화는 물론 교육과 연계된 새로운 생활체육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브리지협회 백성언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아온 동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부산이 국내 브리지 중

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회 개최와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브리지 오해민 회장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함께하는 브리지가 가치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부산 대회는 전국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교류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브리지협회 김혜영 회장은 브리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올해 3월부터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에 브리지 강의를 개설했으며,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여 곳에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회 개최와 교육 확대를 병행해 브리지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장이자, 생활체육과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스포츠 모델로서 브리지가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황요규 기자 hog@

면민과 하나된 감동의 합창 무대

곡성 오산초 '동그라미 합창단', 따뜻한 울림 전해

전남 곡성 오산초등학교(교장 정성룡)는 4월 25일 제21회 오산 면민의 날 기념 '효 한마당 큰잔치' 식전 행사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합창 공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날 무대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번 공연은 평소 방과후학교 합창부 임낙진 교사의 지도로 꾸준한 실력을 갈고닦아 온 전교생이 함께 준비했다.

'동그라미 합창단'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맞추며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했고, 무대 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학생들은 '버터플라이'와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두 곡을 사랑스러운 울림과 함께 선보이며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전했다. 조화로운 하모니와 진심

어린 표현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이번 활동은 오산초등학교가 평소 추구하는 브랜드 교육 가치인 '나눔' 실현으로, 음악을 매개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은 공연을 통해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산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동그라미 합창'으로 빛나는 오산의 하모니를 이어가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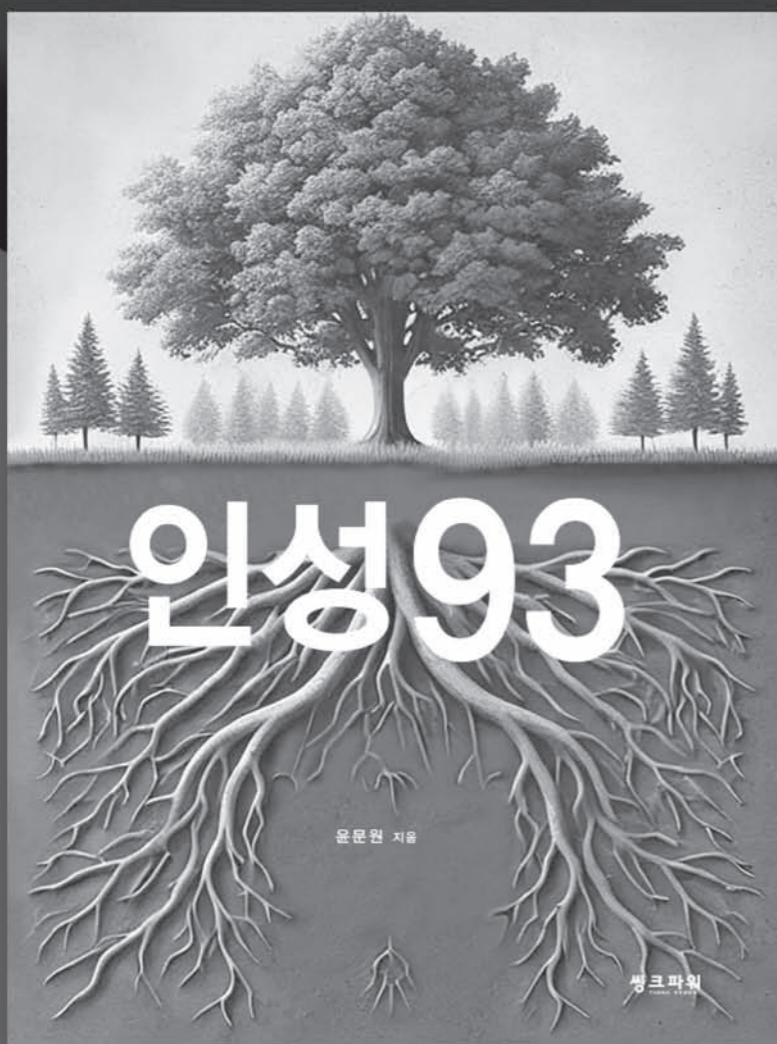
정성룡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재우 기자 2580news@daum.ne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랑,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한국항공대, 북향민 청년·청소년 대상 '항공캠프'

남북하나재단과 협력 16~28세 26명 참가 대학 진학·환경 적응 지원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는 남북하나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4월 18일 북향민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항공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항공캠프는 북향민 청년·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돕고 대학 환경 적응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항공대 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16세부터 28세까지의 북향민 청년·청소년 26명이 참여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드론 아카이

드, 항공정비 실습, 비행시뮬레이션 등 항공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입시 정보 제공과 진학 상담도 진행돼 참가자들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프는 항공 분야 체험과 진학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대학 캠퍼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학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미경 한국항공대 평생교육원장은 “항공캠프가 북향민 청년·청

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북향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진로·진학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캠프와 같이 기술, 이공계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의 꿈을 항공으로 확장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대는 지난해 10월 남북하나재단과 북향민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연구·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항공캠프 역시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국항공대는 앞으로도 북향민 청년과 가족들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유연 기자 lyy@

부산SW·AI교육거점센터, 'e스포츠 챌린지 매치' 개최

중·고교 8개 팀 참가... e스포츠 기반 협업 문제 해결 역량 향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유영욱)은 5월 2일과 9일 부산SW·AI교육거점센터 e스포츠파크에서 부산 관내 중·고등학교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 스와이(SWAI)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e스포츠 챌린지 매치'를 개최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고도화된 디지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공동체적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했다.

대회는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중등부)와 '발로란트'(고등부) 2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예선은 단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결승은 3판 2선승제로 치러진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경기 환경 속에서 팀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전략적 판단을 수행하며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게임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장면은 부산SW·AI교육거

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wai_pen)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참가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우승팀에는 별도의 부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유영욱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e스포츠 챌린지 매치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팀워크를 발휘하며 협업 능력과 전략적 문제 해결력을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jh@

서울교육청, 교육취약학생 문화·진로 기회 강화

은퇴 후 제2 인생,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교육

민관협력 교육복지 모델 '새꿈더하기' 확대 운영... 고등학생까지 진로교육 연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김천홍)은 2026년 교육취약 학생에게 문화·예술·체육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교육복지 사업 '새꿈더하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새꿈더하기'는 교육청 예산 투입 없이 지역기관과 기업의 사회 공헌 자원을 연계해 운영하는 서울형 교육복지 모델로, 교육취약 학생의 경험 격차 해소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해 처음 추진 됐다.

지난 해 사업에는 총 7005명의 학생과 인솔자가 참여했으며, 문

화예술 공연 관람 학생의 40%, 스포츠 경기 관람 학생의 64.6%가 생애 최초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만족도 97.5%, 인솔자 만족도 98.2%, 재참여 희망률 99.2%를 기록하며 높은 현장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전면 개선한다. 우선 기존 초·중학생 중심에서 고등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관람 중심에서 학교 급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참여 인원

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고, 관람 에티켓과 작품 이해를 돕는 사전교육을 강화해 '학습형 관람'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새꿈더하기'는 문화예술, 스포츠, 가족 참여를 아우르는 3개 시리즈로 운영된다.

'우리 함께 무대'는 우리금융미래재단,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약 2000명에게 공연 관람과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새꿈그라운드'는 LG트윈스와 협력해 약 1200명에게 프로야구 경기 관람과 야구교실, 치어리딩 체험을 운영한다. '가족과 공연봄

날'은 서울시 문화본부와 협력해 약 2000명의 학생과 가족에게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새꿈더하기'는 공공이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이 자원을 제공하는 협력형 교육복지 모델로, 교육격차 해소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 역사회와 협력해 더 큰 교육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협력 기반 교육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국제교류문화진흥원, 기업은행 직원 대상 '지속가능 커리어 전환지원 프로그램' 개강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은 4월 20일부터 기업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커리어 전환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임직원을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교육지도사 2급 자격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본 과정은 한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일반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 해설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공평과 의례, 종교와 생활문화 및 콘텐츠 활용 ▲종교와 생활문화 및 콘텐츠 활용 ▲다문화 교육 기법과 역사 비교 ▲경복궁 및 국립중앙박물관 현장 답사 ▲조선왕릉 탐방 등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스토리텔링 기반 해설 기법과 AI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구성까지 포함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정 마지막에는 필기시험과 해설 발표를 통해 학습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수료생은 향후 박물관, 문화유산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개인의 커리



어 확장도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앞서 국가보훈부와 협력하여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동일 과정을 운영한 바 있으며, 당시 수료생들은 국가유공산지킴이 지도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 문화해설 활동가, 콘텐츠 제작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 재진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기업은행 직원 대상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지속가능한 커리어 전환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표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은퇴를 앞둔 임직원이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프

로그램의 핵심"이라며, "개인의 제2 인생 설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2005년부터 우리 문화를 외국어로 세계인에게 알리는 교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대한민국 최초 기관으로, 문화유산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특히,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앞으로 성인 대상 커리어 전환 교육과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해설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문의:Tel. 02-3210-3266 www.k-culture-english.net) 김병선 기자 kbs@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개정... "현장 중심 교육정책 실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대표발

의한 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4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민원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원 보

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입학 대 상을 중소기업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법안 하나하나가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역량 강화 지원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멘토링 사업 10월까지 운영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3월부터 임용 1년 미만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공무원(멘티)과 선배 공무원(멘토)이 팀을 구성해 10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며,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직 내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멘토링은 유사 직무 담당자 간 맞춤형 그룹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규공무원이 현

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후배 및 동료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직무 유사성을 고려한 5개 팀이 구성돼 선배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특히 '멘토링 데이'와 '포레끼리 데이'를 병행 운영해 선·후배 간 교류와 동기 간 유대감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팀별 활

동비를 지원해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업무 매뉴얼 제작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활동도 추진 중이다.

멘토로 참여한 한 공무원은 "공직 초기에 느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큰 보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도규 교육장은 "신규공무원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선·후배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수원 서호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방문 '국가주권·어린이날' 행사 국제교류 활동



경기도 수원 서호초등학교(교장 이희경)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들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4월 23일 튀르키예의 주권의 날 및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튀르키예 대사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양 기관의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 위

한 현장 방문이 추진됐다. 서호초등학교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약 5년 전부터 국제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교류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들은 대사관 측이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사관 내부 투어를 진행하며 튀르키예의 역사

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장 앞에는 서호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그린 '세계 어린이날'과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어린이날 기념 팔찌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한 서호초등학교 학생회장은 "대사관을 직접 둘러보고 튀르키예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무척 신기하고 유익했다"며, "우리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그림과 팔찌 선물을 대사님께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더욱 잊지 못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벅찬 방문 소감을 전했다.

이희경 서호초 교장은 "우리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이 대사관 초청 행사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글로벌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전남 구례간문 초등학교, 담양창평중학교 외	복지시설 / 경로당 서울강동 종합사회복지관, 중평동 신동리 경로당	지자체 / 관공서 단양군청 산림복지과, 진해 군항제 외
---	--	--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평 강상초, 미래 과학자의 꿈 키운다

'2026 강상 과학의 날 행사' 액화질소를 이용한 '극저온의 세계' 체험 등 실험 위주 진행

경기도 양평 강상초등학교(교장 박주복)는 지난 4월 24일 교내 체육관 '하랑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 강상 과학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과학 원리를 실제 실험과 체험을 통해 오감으로 이해하고,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학 교육 전문 기관인 (주)유스페이스와 협력해 수준 높은 실험 장비와 전문 강사진을 배치, 교육의 질을 한층 높였다.

행사는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저학년(1~3학년)은 ▲액화질소를 이용한 '극저온의 세계'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를 이용한 '아이스 에그' ▲고분자 화합물을 배우는



'스트링 슬라임' 등 물질의 상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초 과학 실험 위주로 진행했다. 고학년(4~6학년)은 ▲지시약의 반응을 관찰하는 '아이스 매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실험 ▲고흡수성 수지의 원리를 이

용한 '나만의 아쿠아리움 만들기' 등 심화된 과학 원리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테라리움'과 '아쿠아리움' 등 자신만

의 결과물을 직접 제작해 소장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과학의 날 업무를 추진한 교사 임수지는 "우리 학생들이 하랑관을 가득 채운 과학의 열기 속에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및 전문 기관과 연계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미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상초는 이번 과학의 날 행사 외에도 '강상 예술터' 운영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예술·과학 융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사회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상민 기자 ssm@

전교생과 학부모가 하나 되는 소통·화합의 장

수원 광고호수초, 함께 뛰고 웃으며 성장하는 '호수 한마당 큰잔치' 성황

경기도 수원 광고호수초등학교(교장 김득호)는 4월 22일 본교 운동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2026 호수 한마당 큰잔치'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체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광고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마을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다채로운 종목으로 구성됐다. 저학년(1~2학년)은 '지구를 굴러라', '장애물 달리기' 등 흥미 위주의 게임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중학년(3~4학년)은 '전력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등 협동이 필요한 종목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학년(5~6학년)은 운동회의 꽃인 '학년별 이어달리기'에서 손에 땀을 쥐는 역전극



을 펼치며 뜨거운 응원을 이끌어냈다.

이날 운동회는 단순한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고, 상대 팀의 멋진 플레이에도 박수를 보내는 등 성숙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며 '배려와 존중'이라는 학교의 교육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 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감

회가 새롭다"며,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서 학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고호수초등학교 김득호 교장은 "오늘 운동회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조화롭게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밝고 활기차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도교육청, AI 융합교육 지원단 출범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 수업 설계 컨설팅 활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4월 30일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안착을 위해 '2026년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도교육청 지원을 통해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한 초·중등 교원 100명 내외로 구성

했다. 주요 활동은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수업 설계 컨설팅 ▲교실 적용 중심 실무형 교원 연수 ▲인공지능(AI) 수업 적용 모델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역 기반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요청 시 즉시 지원단을 투입해 일선 학교의 디

지탈 역량 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AI) 수업을 일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교원의 인공지능(AI) 연구 성과가 학위과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변화로 이어지고, 모든 교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민 기자 ssm@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실종 아동을 말하다' 전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실종아동 문제 사회적 관심 환기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원장 전명선)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실종 아동을 말하다' 전시를 개최한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 희망관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업을 추진된다.

전시는 전국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실종아동 문

제를 사회적 재난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생명존중과 안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아동 안전 관련 작품 35점이 공개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람객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남겨진 '기다림·기억·책임'의 메시지를 확장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돌아오지 못한 시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다. 또한 관람객 참여형

전시로 운영돼 메시지 작성, 리본 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기억이 공감으로, 공감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한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생명존중의 가치는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실종아동 문제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자유의 숲' 조성
용인시 '어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踏) 조성'

▶ 4종란 매트길의 특성

-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2. 항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고양가람중, 책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참여형 독서문화 행사



경기도 고양시 가람중학교(교장 양경란)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학교 도서관에서 '인생책꽂이'와 '북스타그램'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친구,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인생책꽂이'는 도서관에 설치된 스티커 사진기에서 친구 또는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활동으로, 참여 학생들은 좋아하는 책을 손에 들고 추억을 남기며 독서를 높이처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스타그램'은 촬영한 스티커 사진을 활동지에 붙이고, 자신이

추천하는 도서와 그 이유를 작성하는 활동이다. 완성된 북스타그램은 도서관 게시판에 전시돼 학생들이 서로의 추천 도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유의 서재', '장원영의 서재', '박지훈의 서재'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읽는 책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도서관에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톨모델이 추천하는 도서를 통해 독서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자발적인 독서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행사 동안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해 도서관은 활기 넘치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양경란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책과 더 가까워지고, 친구·선생님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독서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안산교육지원청, 디지털 혁신 이끈다

'ANSAN Link+X AI·디지털교육' 중등 현장지원단 출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4월 17일 '2026 안산 AI·디지털교육 현장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AI·디지털 교육 혁신을 지원할 전문 교원 네트워크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현장지원단은 안산 관내 중등·특수학교 교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2027년 2월 28일까지 활

동한다. 디지털 교육 사업 운영 경험, 관련 연수 이수 실적, 수업 혁신 역량 등을 갖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하이러닝 활성화 운영 지원 ▲디지털교육 교원역량 개발 지원 ▲지역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학생 대상 디지털 교

육활동 운영 지원 ▲디지털 사업 운영교 지원 ▲에듀테크 모델 구축 운영 지원 등 6대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컨설팅,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은 지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개 R&P 연구회를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과 미래형 수업 모델 연구를 병행하며,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상민 기자 ssm@

광양중앙초, 어린이날 맞이 다채로운 행사

학생회 주관 전교생 대상 페이스페인팅·행운의 뽑기·주사위 굴리기 등 이색 체험

광양중앙초등학교(교장 최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행사'를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교학생회가 주관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학생 주도로 진행됐으며, 학년별로 날짜를 달리해 학생들이 질서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4학년은 4월 28일, 5~6학년은 4월 29일, 1~2학년은 4월 30일에 각각 중간놀이 시간(10:30~10:50)을 이용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는 크게 세 가지 체험 코너와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구령대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체험이 운영돼 학생들이 1인 1회 자유롭게 참여하며 개성 넘치는 얼굴 꾸미



기를 즐겼다. 운동장에서는 '행운의 뽑기'와 '주사위 굴리기' 코너가 함께 열렸는데, 뽑기는 팜 없이 등수에 따라 상품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주사위

굴리기는 주어진 조건을 달성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중앙현관에 포토존을 마련해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운

영했다.

학생 자치 담당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학생 자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교학생회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중앙초등학교는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어린이날 행사가 어린이들의 권리를 되새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유란 기자 2580news@daum.net

기자수첩

'셀프 심사'가 만든 국가대표... 공정성은 어디에 있었나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공적 절차다. 특히 국가를 대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도자를 선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의 이번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 심사를 맡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각자 감독과 코치에 지원했고, 심사 과정에도 참여한 뒤 최종 선임됐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셀프 심사' 구조다.

이해관계자는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공공 영역의 최소 기준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이나 공정성을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 선이 무너진 순간,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황우규 기자

논란이 커지자 협회는 선발을 무효화하고 재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그 사이 발생한 행정 혼선과 시간 손실은 오히려 선수단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대회를 앞둔 국가대표에게 지도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셀프 심사' 공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경기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변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해충돌 관리 실패, 독립성 없는 심사 구조, 불투명한 기준, 그리고 사전 검증 부재까지,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

더욱이 여성 선수 비중이 상

당한 대표팀에서 여성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선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대 흐름과도 어긋난다. 적합 판정을 받은 후보가 있음에도 관례를 이유로 배제했다면, 이는 공정성 이전에 구조적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대표 선발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존중받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실질적 작동,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심사 구조,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대표는 특정인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리다. 그 자리가 '누가 뽑았는지'가 아니라 '왜 뽑혔는지'로 설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이번 논란이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체육계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생명존중·상생평화 국제토론회 제주서 개최

한국생명운동연대, 종교·시민사회 130명 참여 자살예방 협력체계 모색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공동대표 조성철, 무원스님)는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영관센터에서 종교계와 시민사회 관계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명존중·상생평화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심화된 생명경시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존중 가치 확산과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생명존중시민회의, 불교상담개발원 제주분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생명존중의 날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국제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지역과 국제 차원으로 확대했다.

기념식에서 조성철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가 앞장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며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 스님은 환영사에서 "생명은 종교를 넘어선 인류 공동의 가치"라며 "상생과 평화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

인 만큼 종교와 이념,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지혜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선 교무는 "상생은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며 평화는 모든 생명이 안녕을 누리는 상태"라며, "절망에 놓인 이웃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자살 예방 전달체계와 해외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점은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후 종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생명존중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본 토론회는 박인주 나눔국민운

동본부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자살 예방 정책이 여전히 수동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살예방 지방사무 명시, 226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재난안전교부금 활용, 별도 기금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제2주제에서는 일본 고치대의 이노우에 겐 교수가 일본의 자살 예방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자살대책기본법 시행 이후 약 10년간 자살률이 30% 이상 감소했다"며, "지자체 중심 협력체계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청소년 자살 증가 문제는 한국과 유사하다"며 양국간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회에는 고관영 한라대학교 부총장, 송수경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 진방주 교회 목사, 양두석 공동대표가 참여했으며, 종합토론회에는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이어 러시아 심리학자 페이드라 크마노바 라빌리아가 특별강연을 통해 러시아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행동 유형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며 국제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병선 기자 kbs@

교실을 넘어 지역으로... 아이들 과학 호기심 활짝

무안 현경초, 메이커스페이스와 함께 '과학의 날' 체험 활동 운영

전남 무안 현경초등학교(교장 안진우)는 4월 23일 무안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과학의 날' 체험 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전문적인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해 진행됐다. 학교를 벗어나 지역의 전문 공간으로 이동해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학년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1~2학년은 '풍선 자동차 레이스'를 통해 기초적인 과학 원리를 익혔고, 3~4학년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나만의 클리커'를 제작했다. 5~6학년은 레이저 가공기를 활용한 '카네이션 풍선' 만들기 체험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과학 기술을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 지역 전문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체험 중심 교육 사례로 의미가 크다. 지역 기관의 전문 인력과 학교 교사가 함께 지도해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진우 교장은 "무안군 메이커스페이스의 설립 취지에 맞는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과학적 호기심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양길 기자 2580news@daum.net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최우수등급

조달청우수제품지정업체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KEVIC Professional Audio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곡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인천부평남초,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잡다

늘봄학교 환경 개선... 놀이체육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 쾌적한 돌봄 환경 구축

인천부평남초등학교(교장 이재일)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늘봄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늘봄놀이실을 리모델링해 노후 시설을 전면 개보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체육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학생 친화적 늘봄교실을 편안하고 따뜻한 디자인과 현



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춰 아이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돌봄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걱정 덜어주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새롭게 단장된 환경 속에서 골프, 우쿨렐레 교실, 자연과 호흡하는 야외 예코생태 놀이,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체육 등 부평남초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아이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커리큘럼 덕분에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일 교장은 "인천부평남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해든초 "우리 학교는 우리가 지켜요"

1학년 대상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인천해든초등학교(교장 김병욱)는 지난 4월 16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초청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내방해 이제 막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1학년 신입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경찰관은 자칫 초등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 구분하기 △장난과 폭력의 차이점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사례 중심의 이야기로

쉽게 풀어나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저학년 시기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생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실명을 경청하며,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친구를 사랑하는 법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욱 교장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의 첫발을 내디디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밤 하늘 아래 부모·아이가 함께 걷다"

인천계양초, 제3회 '별 보며 산책' 행사 전개

인천계양초등학교(교장 우명일) 아버지 동아리가 주관하는 제3회 '별 보며 산책' 행사가 지난 4월 24일 저녁 8시 28가족 94명 교직원 7명 등 총 101명이 계양초등학교 정문을 출발해 2시간 30분의 여정을 거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3년 연속 이어온 이 행사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발길을 걸으며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 가족들은 계양초 정문을 시작으로 갈현체육공원(야구장)을 지나 아라뱃길 북단 산책로를 따라 황어 동상까지 약 2시간 30분의 야간 산책을 했다. 산책 내내 아버지 동아리 회원들과 계양초 교직원이 안전조끼를 입고 야간 안내봉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원했다.

도착지인 황어 동상 앞에서 야식이 제공됐으며 참가 가족들은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마무리했다. 큰 준비 없이 편안한 복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덕분에 다양

한 가치가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버지 동아리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신선초, 장애인 인식 개선·공감능력 함양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NEW VISON CONCERT' 개최

인천신선초등학교(교장 권동환)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바른 인식 개선과 공감능력 함양을 위해 4월 23일 시청각실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음악회 'NEW VISON CONCERT'를 개최했다.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민간 실내관현악단으로 2007년 창단돼 15명의 시각장애인 단원과 10명의 비장애인 단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기적의 음악',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극찬을 받고 있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 꿈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은 'NEW VISON CONCERT' 활동을 통해 전국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찾아가 학생, 교사들에게 음악을 선사하며 장애에 대



해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과 친숙한 대중음악을 함께 선보이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시각장애 연주자들이 모든 곡을 암보해 완성도 높은 연주를 펼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으며, 장애와 관련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모습은 큰 울림을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많은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장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소중한 기회를 지니게 됐다.

또한 서로의 다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학교 공동체 내에서 배려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용섭 기자 ays@

도서부 선배가 읽어주는 그림책 활동

인천갈산초, 독서 나눔 실천... 매달 프로그램 진행

인천갈산초등학교(교장 김윤식)는 6학년 도서부 학생들이 1~2학년 교실을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월 24일 밝혔다. 매달 진행되는 이 활동은 선배와 후배가 함께 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은 학급을 두 모둠으로 나눈 뒤 뒷자리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이뤄진다.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주는 낭독에 저학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집중하며 책 내용에 몰입하고 있다.

준비 과정도 학생들이 맡았다. 도서부원들은 활동에 앞서 읽을 책을 직접 고르고, 두 명씩 짝을 이뤄 낭독 연습을 진행했다.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아 발음과 표현을 다듬으며 듣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습을 반복했다.

지난 4월 23일에는 2학년 교실에서 '다다다 다른 별 학교', '감기 걸린 물고기', '이웃이 생겼어요',

'다름' 등을 읽어준 뒤, 이야기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도 마련돼 큰 호응을 끌어냈다.

참여한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가 읽어주는 책이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활동이 자주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식 교장은 "이번 활동이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선배들에게는 책임감과 나눔의 기쁨을, 후배들에게는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용정초-홍콩 St. Matthew's Lutheran School

체육으로 잇는 국제교류 운동회

인천용정초등학교(교장 박태규)는 4월 22일 홍콩 St. Matthew's Lutheran School(교장 양패영)과 함께 국제교류 운동회를 개최해 학생 간 문화 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양국 학생들이 체

육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경기와 팀 활동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국제교류 행사에는 오송한 인천시교육청 국제교류 특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오송한 인천교육청 국제교류 특보는 "국제교류는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며, 오늘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넓은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용정초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가기겠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다시 펼치는 교과서, 다시 시작되는 배움

대전교육청, 현장 소통으로 특수교육의 미래 열다

대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학교밖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 등 연계

대전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학교밖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출입이나 학업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하여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중학교 과정 학생 중 원적교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 중학교에서 지원한다. 해당 학교에서 선정하여 사용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하면 원적교에서 교과서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학 등의 사유로 원적교가 없는 경우에는 취학 통지 배경교에서 지원하며, 중학교 과정 학생 중 원적교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 중학교에서 지원한다. 해당 학교에서 선정하여 사용

중인 교과서를 학년별로 각 1종씩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에 따른 구입 예산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학교밖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정책과 김용욱 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렴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유현호 기자 whh@**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 모여 특수교육 정책 현장소통 협의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은 4월 30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모여 '2026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장 소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특수교육 주요 정책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특수학교 파견학급 및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 학생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학생·교직원 참여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통합교육 협력 교원 배치 및 운영 내실화, 지역 대학 연계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모델 발굴 등 대전 특수교육의 현안 과제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모범 사례로 꼽히는 장애 학생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의 성과를 공유했다. 현재 31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5주간의 임상 실습과 슈퍼비전을 진행 중이며,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5월 7일 개관 예정인 장애 참여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해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활용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를 송출하며 학교 현장의 공감 문화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유아특수교육과 어용화 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급) 운영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이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현호 기자 whh@**

대전체육고, 사이클 남자고등부 공식 창단

지역 사이클 경쟁력 강화·우수 인재 발굴 출발점

대전시교육청은 4월 30일 대전체육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사이클 남자 고등부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창단은 학생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과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사이클 종목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창단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진로와 진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다. 창단식에는 대전시교육청을 비

롯해 대전시체육회, 대한(대전)사이클연맹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사이클 남자 고등부는 4명의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했으며,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선수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전문

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기량을 향상하고 올바른 인성과 스포츠맨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체육고등학교 김석중 교장은 "사이클 남자 고등부 창단을 계기로 학생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체육예술건강과 김희중 과장은 "사이클 남자 고등부 창단은 지역 체육 인재 육성과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교육청에서도 우수 선수 발굴과 지속 가능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예술 교과 전문성 신장 상반기 워크숍

음악·미술 교원 대상 역량 강화·현장 적용 중심 연수 추진

대전시교육청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음악·미술 교원을 대상으로 예술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예술 교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음악 교원과 미술 교원을 구분하여 교과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했다.

음악 교원 대상 워크숍에서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고석우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와 합창 지휘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휘 기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미술 교원 대상 워크숍에서는 남정덕 강사가 '동시대 미술 동향과 미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

를 진행했다. 현대 미술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과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미술 교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아울러 저경력 교원을 대상으로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예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유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연수원, 특수학급 학생 위한 '아트 배송'

학생야영수련교육 '찾아가는 특수학급 힐링데이' 11월 4일까지 운영

대전교육연수원은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등 총 50개교, 390명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특수학급 힐링데이'를 오는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수학급 힐링데이'는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네온아트, 도자기 페인팅, 마크라메, 오르프 합주, 난타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구성했으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작 활동

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익숙한 학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사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전액 지원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학교별 여건에 맞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WDSF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의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 장소 : 청주 OSCO 2 HALL | 후원 : WDSF, WDSF KOREA, WDSF KOREA KOREAN BRANCH, WDSF KOREA JAPANESE BRANCH, WDSF KOREA CHINESE BRANCH, WDSF KOREA THAI BRANCH, WDSF KOREA VIETNAM BRANCH, WDSF KOREA PHILIPPINE BRANCH, WDSF KOREA MALAYSIA BRANCH, WDSF KOREA AUSTRALIA BRANCH, WDSF KOREA HONG KONG BRANCH, WDSF KOREA TAIWAN BRANCH, WDSF KOREA SINGAPORE BRANCH, WDSF KOREA INDOONESIA BRANCH, WDSF KOREA BRAZIL BRANCH, WDSF KOREA MEXICO BRANCH, WDSF KOREA USA BRANCH, WDSF KOREA CANADA BRANCH, WDSF KOREA RUSSIA BRANCH, WDSF KOREA UK BRANCH, WDSF KOREA GERMANY BRANCH, WDSF KOREA FRANCE BRANCH, WDSF KOREA ITALY BRANCH, WDSF KOREA SPAIN BRANCH, WDSF KOREA NETHERLANDS BRANCH, WDSF KOREA BELGIUM BRANCH, WDSF KOREA SWITZERLAND BRANCH, WDSF KOREA AUSTRIA BRANCH, WDSF KOREA GREECE BRANCH, WDSF KOREA POLAND BRANCH, WDSF KOREA CZECH REPUBLIC BRANCH, WDSF KOREA SLOVAKIA BRANCH, WDSF KOREA SLOVENIA BRANCH, WDSF KOREA CROATIA BRANCH, WDSF KOREA SERBIA BRANCH, WDSF KOREA BOSNIA AND HERZEGOVINA BRANCH, WDSF KOREA MONTENEGRO BRANCH, WDSF KOREA ALBANIA BRANCH, WDSF KOREA BULGARIA BRANCH, WDSF KOREA ROMANIA BRANCH, WDSF KOREA HUNGARY BRANCH, WDSF KOREA CYPRIOTE BRANCH, WDSF KOREA ARMENIA BRANCH, WDSF KOREA GEORGIA BRANCH, WDSF KOREA AZERBAIJAN BRANCH, WDSF KOREA UZBEKISTAN BRANCH, WDSF KOREA KAZAKHSTAN BRANCH, WDSF KOREA KYRGYZSTAN BRANCH, WDSF KOREA TAJIKISTAN BRANCH, WDSF KOREA TURKMENISTAN BRANCH, WDSF KOREA UZBEKISTAN BRANCH, WDSF KOREA KAZAKHSTAN BRANCH, WDSF KOREA KYRGYZSTAN BRANCH, WDSF KOREA TAJIKISTAN BRANCH, WDSF KOREA TURKMENISTAN BRANCH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대전교육청, 학부모회 역량 강화 연수

초·중·고 특수학교 학부모회 및 모니터단 370여 명 참석



대전시교육청은 4월 30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학부모회 회원 및 대전 교육 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3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부모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3주체 간 신뢰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촉진하고,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회의 자치 역

량을 강화하여 건전한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인성성장지원협동조합 느티나무 최미숙 대표가 '공감으로 시작하는 자녀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대화법의 기본인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대전노은초등학교 김옥세 교장은 '학부모회·학부모 모니터단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협력적인 학부모회를 위한 방향과 기능에 대해 학교 현장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해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학부모회 및 학부모 모니터단 여러분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현호 기자 whh@**

<https://worldfurni.com>



부산·경남 가구 조달 판매 1위

WORLD FURNITURE

상담전화
1588-3886

 월드퍼니처
www.worldfurni.com

**학교 교육용 가구 전문 생산업체 월드퍼니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품질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연계고용담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시담
하여 계약을 체결

BENEFIT 03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 가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확대 본격 추진

부산교육청, 173명서 244명으로 40% 확대 채용... 5월 중 추가 수요 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채용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 확대와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인력지원이 필요한 학교나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인력을 선별하고, 맞춤형 직무훈련으로 현장 적

응력을 높인 후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규모를 현재 173명에서 올해 244명까지 약 40%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특수학교 9곳과 10개 도서관 등에서만 채용하던 장애인 인력을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과 공립학교 전체로 채용 대상 기관을 넓혀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지난 2월에는 전체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1개 학교와 기관에서 43명의 장애인 인력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 이후 채용된 인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5주간의 맞춤형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또,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순환형 현장훈련을 실시한 뒤, 5월 부터 일선 학교나 기관에 배치되

어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5월 중에도 추가 수요를 파악한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jlh@

부산경남여중, 몽골 불간주 배구 선수단과 국제 교류

스포츠로 이어진 한·몽 청소년 우정... 글로벌 인재 성장 발판 마련

부산 경남여자중학교(교장 이춘희)는 지난 4월 21일 몽골 불간주 배구 선수단을 초청해 한·몽 국제 친선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체육지자체협의회(회장 오정룡) 주최로 진행됐으며, 몽골 불간주 부레그랑가이군 스포츠종합학교 소속 선수 15명과 임원, 통역 등 총 20여 명이 참가해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와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교육과 이기원 과장이 참석해 양국 선수단을 격려하며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친선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양국 청소년들이 스포츠맨십과 우정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펼쳐졌다. 경기 전 선수들은 기념품

을 교환하고 서로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작은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문화 다양성과 국제 교류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이번 행사 주최 측인 부산체육

지자협회 오정룡 회장은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가장 좋은 언어"라며, "이번 교류가 양국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우정과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교육과 이기원 과장은 "국제 스포츠로 이어진 한·몽 청소년 우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 성장 발판을 마련"이라고 말했다.

경남여자중학교 이춘희 교장은 "이번 한·몽 국제교류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향한 열린 시야와 소통의 가치를 일깨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여자중학교는 앞으로 스포츠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 및 문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 과 세계시민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황요기 기자 hog@

내집 앞 영화관에서 문화 공연 즐기자

부산시-CGV 협업, '우리동네 문화상영관'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씨지브이(CGV) 영화관과 협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문화상영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시민들의 관람 형태 변화 등으로 위축된 극장 상영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연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행사는 4월 22일부터 3일간(4. 22./4. 24./4. 30.) 씨지브이(CGV) 영화관 3곳에서 개최됐으며, 저녁

시간대(19:30~20:30)를 활용해 가족 단위, 직장인, 그리고 다양한 문화 취향을 가진 시민들의 공연 관람을 위해 마련됐다.

영화관은 동부산/중부산/서부산을 대표하는 씨지브이(CGV)센터시티, 씨지브이(CGV)서면, 씨지브이(CGV)하단아트몰링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지역 골고루 거주 인근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싱잉볼 명상 ▲마술쇼 ▲재즈 ▲탱고 등 7개의 장르로 3일간 총 9회에 걸쳐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부산시와 씨지브이(CGV)는 이번 한 달간 시범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개선점 등을 점검하여 극장에서 더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조유장 시 문화국장은 "시와 씨지브이(CGV)의 협업을 통해 '우리동네 문화상영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영화관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일상문화 모델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pes@

부산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라데이 무한약속' 캠페인

제21회 가족체험 행사와 병행, 부산교육발전연구회·연제구가족센터와 공동 추진

부산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진령)는 4월 2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한 '제21회 웃음꽃 행복가득 가족체험' 행사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 약속(Busan The boraday Syndrome)' 캠페인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는 '보라데이 ∞ 약속' 캠페인은 부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엄지아)와 연제구가족센터(센터장 김재오), 그리고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안전 강화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부산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이 캠페인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 홍보 넘어선 '시민 다짐 엽서' 활동 눈길 이날 센터는 행사장 내 별도 부스를 마련해 '보라데이 ∞ 약속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다짐 엽서 작성활동을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직접 예방 의지를 담은 엽서를 작성하며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센터 측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스스로가 폭력 예방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두텁게 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1,126명의 가족이 참여해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보라데이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겼다.

엄지아 부산교육발전위원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부산교육발전연구회, 연제구가족센터,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폭력 없는 안전한 연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라데이'는 매월 8일로 지정돼 있으나,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으며, 부산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현 기자 jlh@

부울경 외국인 유학생, 부산서 꿈을 잡(Job)아라!

'BUSAN Dream Job Fair' 44개 기업 참여, 채용 특강 문화행사 다채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4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4E, 4F홀)에서 부·울·경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채용박람회 'BUSAN Dream Job Fa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부산라이즈혁신팀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외국인유학생통합지원허브,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 외에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지역 내 대학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올해로 네번째 열린 이번 박람회는 울산과 경남 지역 유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참가기업 범위를 경남까지 넓히고, 울산대학교, 창

원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울산과 경남 지역 유학생도 참여해 부·울·경 초광역 취업 플랫폼으로 운영됐다.

제조업, 호텔·관광·마이스(MICE), 서비스업, 물류·무역, 의료기관 등 지역 주요 산업 분야의 4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년도(35개) 대비 약 25퍼센트(9%) 늘어난 규모로 지역 기업의 외국 유학생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행사로는 현장 채용관, 부대 행사관(증명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외국인 유학 선배 및 기업 채용 담당자 특강, 부산 청년 국악 공연, 비푸드(B-Food) 시사회 등을 다채롭게 운영했다. 채용관에서는 44개 참가기업의 구직자 이력서 접수와 현장 면접이 진행되며, 부대 행사관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퍼스널컬러 진단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

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수잔 사키야(네팔) 씨가 유학 경험담과 진로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부산 엔지니어링 및 유닛(UNIT) 제작기업 (썬라스텍)의 박덕진 인사팀장이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상학국장은 "이번 'BUSAN Dream Job Fair'는 지난 2월 개소한 '부산외국인유학생통합지원허브'를 중심으로 처음 개최하는 초광역형 행사로 부산을 넘어 울산·경남을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관·산·학 협력을 더 강화함과 동시에, 부·울·경이 글로벌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활용하는 선도 모델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전했다.

황요기 기자 hog@

AI·데이터 기반 미래형 과학실, 우리가 만듭니다

디지털 전환시대 지능형 과학실도 진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기자재 에듀테크 1등 기업

설계부터 구축까지, 지능형 과학실 토탈 솔루션

현미경

WiFi 현미경

실물화상기

VR

밀폐시약장

Tel : 1544.9343

“교복 유통구조 혁신… 학부모 부담 줄여야”

충북교육청, 교복제도 개선방안 논의… 생활형 교복 확대·현장 의견 반영 강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3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학생 교복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교복 가격과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1만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생활형 교복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68%, 교직원 66%가 생활형 교복을 선호했으며, 교복 가격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도 많았다.

윤건영 교육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학생들과 편안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복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복 가격 상승과 품질 문제와 관련해 공급과 유통 과정 전

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교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 교복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반영한 교복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성 기자 ygs@

“학생 동문 교직원, 경쟁 아닌 함께 즐기는 시간”

충주성모학교, 2026학년도 성모한마음 행사… 세대 간 소통의 시간 가져

충주성모학교(교장 장은주)는 30일 교내 보육관 및 강당에서 학생과 동문,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2026학년도 성모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충주성모학교는 ‘미니올림픽 및 동문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부 미니올림픽과 2부 동문 레크리에이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학생과 동문이 한 팀을 이루어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민속놀이에 참여

하며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경험했다. 각 종목은 참여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활동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수행 결과에 따라 간단한 보상을 제공해 참여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동문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동문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공동 활동과 게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선후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행사 중에는 학교장과 동문 대표 간 간담회가 함께 진행돼 학교 발전 방향과 동문과의 지속

적인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충주성모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한편, 동문과의 교류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은주 충주성모학교장은 “이번 성모한마음 행사는 경쟁이 아닌 함께 즐기는 활동을 통해 학생과 동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따뜻한 학교 문화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대안교육기관 디지털 학습환경 지원

충북교육청, 다채움 아이디 발급·교육용 ‘이로미’ 보급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도내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다채움 플랫폼 아이디 발급과 교육용 태블릿 ‘이로미’와 충전보관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 수준의 디지털 학습 자원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충북에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6곳에 초·중·고 학생 3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도교육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89명과 교사 18명에게 다채움 아이디를 발급하고, 교육용 태블릿 ‘이로미’ 103대를 보급했으며 충전보관함도 기관별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대안교육기관 하디글로벌스쿨에서 초등 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이로미’를 활용한 다채움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채움 플랫폼 접속 및 계정 활용 방법 ▲교육용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수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활동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유기성 기자 ygs@

유기성 기자 ygs@

미래 사회 변화 능동적 대응하는 유아 교육 전개

유아교육진흥원, 2026 맞춤형 방과후(연장) 과정 담당자 연수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유아교육진흥원(원장 박연숙)은 30일 충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연장) 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방과후(연장) 과정 담당자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아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방과후(연장) 과정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유아 발달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기질, 알면 보요! 교실이 편안해지는 긍정 훈

육’을 주제로 화원꽃뜰유치원 박 밝음 교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유아의 기질 유형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방법과 긍정적 훈육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교실 상황을 반영한 사례를 공유하며 유아의 정서 안정과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지원하는 지도 방법을 구체화했고, 교실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전체 6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30일 까지 3기로 나뉘어 운영됐으며, 27

일에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1기 대면 연수가 진행됐고, 20일부터 26일까지는 구급 클래스룸을 활용한 비대면 비실시간 연수가 함께 운영됐다.

박연숙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 돌봄이 연계된 균형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 연수를 확대해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주예성여고, 학생 맞춤형 대입 전략 수립 지원

대입 환경 변화 대응 충주 지역 고1~2학년 학부모 대상 연수 진행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교장 지현옥)는 28일 오후 7시 본교에서 충주 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변화에 따른 학생 맞춤형 대입 전략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학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충주 관내 10개 고등학교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당초 계획 인원을 크게 웃도는 200여 명이 신청해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연수는 ‘2028·2029학년도 대입을 위한 우리 아이 맞춤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1학년과 2학년 학부모를 분리



해 별도 장소에서 진행함으로써 학년 단계에 맞는 대입 준비 방향과 학습 설계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1학년 학부모에게는 고교학점제 기반 과목 선택과 학습 설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2학년 학부모에게는 수시 전형 대비와 실질적인 대입 준비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연수 참여 학부모에게는 주요 대입 정보와 학년별 준비 전

략을 정리한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해 연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현옥 충주예성여고 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습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는 진학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교육청, 청주테크노폴리스 마지막 초등학교 신설

내곡4초(가칭) 2030년 개교 목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9일 석성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을 통해 내곡4초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곡4초등학교(가칭)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19,993.6㎡ 부지에 53학급(유 7, 초 42, 특수 4), 총 1,129명(유 149, 초 980) 규모로 설립되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그간 내곡4초등학교(가칭) 신설을 위해 청주시 내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학부

모와 동문, 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석성초 동문회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전체 14세대 중 11세대(약 79%)가 이전에 찬성함에 따라 내곡4초등학교(가칭) 신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석성초등학교는 향후 신설대체 이전 행정예고를 거쳐 이전이 최종 확정되면, 2026년 9월부터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금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는 2019년 청주내곡초 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 내곡3초등학교(가칭), 2028년 내곡유치원(가칭), 2029년 내곡중학교(가칭), 2030년 내곡4초등학교(가칭)가 순차적으로 개교해 학교 설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석성초 학부모 및 동문회,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대체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 그대로
보리, 현미 쌀국수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충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은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 행사, 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 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여수공고, 2026 전남기능경기대회 종합 1위

고흥 봉래초, 장애 공감 배려 문화·올바른 인식 확산

금 8은 8·동 6·장려 7 획득...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남 대표로 출전

여수공업고등학교(교장 김대원)는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일원(여수·순천·나주·해남·화순)에서 개최된 '2026 전남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기술 인재 양성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기술 수준 향상, 우수기능인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했다.

총 34개 직종, 249명의 숙련기술인이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역량을 겨뤘다. 여수공고는 용접, 전기제어, CNC밀링, CNC선반, 모바일로보틱스, 산업용드론제어, 프토타입모델링, 폴리메카닉스 등에 출전하여 금 8개, 은 8개, 동 6개, 장려 7개를 휩쓸며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상금 및 표창과 함께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오는 9월 인천광역사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에서 모인 우수 기술인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매년 지역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 대표를 꾸준히 배출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 교육 역량을 갖추고 있다.

김대원 교장은 "성실히 훈련에 매진한 학생과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함께 했

고흥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장애 이해·인식 개선 교육' 운영

봉래초등학교(교장 조재상)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1시 봉래초 과학실에서 병설유치원과 전교생,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고흥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장애 이해·인식 개선 교육'을 운영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차별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중심 교육으로 기획됐다.

바리스타를 꿈꾸는 전민수 강사가 직접 삶의 이야기를 전해 학생들의 큰 공감을 끌어냈다.

이날 교육은 관련 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의미를 뒀다.

교육은 고흥군장애인복지관 차정환 팀장과 임재현 강사를 중심으로 신현도, 전민수 보조 강사가 함께 참여해 진행했다. '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의 예절과 다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장애 영역 이해, 상황별 인사 방법, 예절 학습, 다름을 느끼는 그림 그리기 활동 등을 운영했다. 또한 고양이 캐릭터 '고양민'과 함께하는 굿즈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신현도 강사와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실 내 상호 이해를 높여 갈 계획이다. 나아가 장애 공감 문화 확산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장애 인식 개선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재현 강사는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이 매우 의미 있었다"라며 "먼저 인사하고 묻고 행동하는 기본 예절을 배우고, 감각에 의존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4학년 권OO 학생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배려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2580news@daum.net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만든다

구례북중 구례동중 구례산동중, 소규모 연합 체육한마당 성황



지난 4월 17일 전남 구례북중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구례동중학교, 구례산동중학교, 구례북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소규모 연합 체육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학생들은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어울리며 경쟁보다는 화합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응원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뛰고 웃을 수 있어 더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밝은 에너지에 큰 의미를 두었다. 한 교사는 "작은 학교의 한계를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극복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학생들에게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구례북중의 신은호 교장은 연합 체육한마당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작은 학교들

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약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즐겼다. 특히,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협동 공굴리기 등 팀워크를 요구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례북중의 신은호 교장은 연합 체육한마당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작은 학교들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소통

순천 동산초, 베트남 타이훅초등학교와 화상 교류

전남 순천 동산초등학교(교장 구경석)는 4월 29일 베트남 호치민시 타이훅초등학교와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실시간 화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방과후 시간 외에도 격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집중적인 준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을 통해 한국의 지형, 기후, 역사 등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자료를 만들고, 타이훅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할 한국의 주요 체험지를 선정하는 등 서로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화상 교류는 2024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시 타이훅초등학교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서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중언어 강사와 함께하는 베트남어 시간은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가고 있으며 화상 수업에서도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5~6학년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제교류동아리 학생들은 평일

동산초 구경석 교장은 "토요일

까지 등교하여 국제교류 수업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노력으로 화상 교류 수업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며, "학생들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산초등학교는 이번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더욱 심화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어 기초 언어 수업과 민속 미술 및 음식 체험을 통해 소통의 깊이를 더한다. 이어 9월부터는 양국 학생들이 함께 '기후위기 프로젝트'에 착수해 각국의 환경 문제 실태를 공유하고 학생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편도체는 달래고 전전두엽은 깨우고!

함평교육지원청, 함그레 교원 아카데미 1차 연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순)은 지난 4월 23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생태전환교육 담당 교사 및 희망 교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함그레 교원 아카데미' 1차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실천 중심의 생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하태석 전 장흥중학교 교장은 '함평만에 연결된 나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갯벌 생태계의 변화와 인간의 뇌과학적 원리를 연결하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하 전 교장은 "인간은 본래 바다에서 온 생명체이며, 갯벌을 걷고 자연의 향기를 맡는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우리 안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전 교장은 "경쟁과 시름이라는 불안 요소로부터 아이들의 편도체를 다독이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며, "자연 속 경험이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아이들을 자기 조절력을 갖춘 온전한 인간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석범 기자 2580news@daum.net

S2B www.S2B.kr
학교장터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주식회사 한스쿨

한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영양 교육으로 건강한 학생 성장 도와”

전북교육청, 개념기반 탐구학습 적용한 영양 수업나눔 콘서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영양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학생 중심 영양교육 강화를 위해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 연구원에서 '2026년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적용한 영양 수업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단순한 강의 중심 연수가 아니라 현장 교사의 수업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수업나눔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 영양수업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수업나눔 콘서트는 △2026년 영양·식생활교육 지원계획 안내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적용한 영양수업 설계



강의 △현장 적용 수업 시연 △질의 및 토의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삼례초등학교 정민수 수석교사의 '개념기반 탐구학습으로 디자인하는 영양수업' 특강과 전

주화정초등학교 노시형 영양교사의 '내가 먹은 음식, 나를 만든다' 수업 시연이 마르네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연수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이날 연수에서는 3년간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적용한 영양수업 나눔을 실시한 영양교사 20명의 수업자료를 모아서 제작한 '영양정(영양수업 탐구여정)'자료집을 배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영양교사가 교육과정 기반의 수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영양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임영근 문예제건강과장은 “영양수업은 학생의 평생 식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영양수업 모델을 개발, 적용해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서적 고충 해소

5월부터 심리 상담·진료기관 38개 추가로 총 104개 확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정서적 고충 해소와 건강한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심리상담·진료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직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정서문제,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진료) 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상담 및 진료 기관 66개를 지정해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사

담·치료를 상시 지원하며 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해왔다.

이에 5월부터는 심리상담·진료 기관 38개를 추가로 지정해 총 104개(상담기관 75개, 진료 기관 29개)로 확대·운영한다.

이는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악성 민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상담 인프라가 부족했던 군 지역 및 소의 지역에 기관을 우선적으로 확대 지정해 어느 지

역이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면 누구나 익명성을 보장받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번 상담기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거주지 및 근무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지원을 받고, 심리적 안정을 얻어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청렴도 1등급 달성, 청렴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해요

전북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5월 18일~7월 말까지 순차적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조직 내 수평적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촉진을 위해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청렴 퍼실리테이터 21명을 양성하고, 매년 '찾아가는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은 기관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렴 퍼실리테이터는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3년차를 맞은 올해는 외부 강사 중심에서 벗어나 내부 퍼실리테이터만으로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올해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은 18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함께 만드는 청렴,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8일 '2026년 청렴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청렴 퍼실리테이터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화과정 연수에서는 △워크숍 주 강사 수행을 위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역량 심화 △전년도 조직문화 워크숍 참여기관 실행결과 분석 △신청기관별 맞춤형 워크숍 설계 및 역할 실습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심화과정을 수료한 18명의 청렴

퍼실리테이터는 3개 팀으로 나누어 팀별 수석 퍼실리테이터(주강사)와 팀 퍼실리테이터(보조강사)를 지정, 신청 기관별 맞춤형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한 청렴 퍼실리테이터 제도 3년 차를 맞아, 이제는 우리 교육청의 상황이 가장 잘 아는 내부 직원들이 주강사로 나설 만큼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며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 문화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궁극적으로 내부청렴도 1등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상반기 찾아가는 헌법교육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 올해 140학급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무부 소속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오는 7월 20일까지 상반기 찾아가는 헌법교육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헌법을 딱딱한 법 조문이 아닌, 우리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약속으로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초등학교 1~4학년 '인권과 법' △중학교 1~2학년 '기본권과 법 I'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기본권과 법 II' 등 3개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현직 변호사, 연구원, 초·중등 교

원 등 헌법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학교 현장의 관심도 뜨거웠다. 법무부의 시도별 배분 학급수에 따라 도내에서는 상·하반기 70학급씩 총 140학급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여 신청에 145개교 1,000여 개 학급이 몰렸다.

도교육청은 학교급과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최종 140학급을 선정했으며,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헌법교육 교원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청소년기는 올바른 가치관과 법의식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헌법 정신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등 청렴교육

권익위 전문가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등 기준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6년 행동강령책임관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기관과 학교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행정지원과장·교(원)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의 장으로 삼아 전북교육청의 청렴 실천 의지를 한층 확고히 한 것은 물론 권익위와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했다.

교육은 청탁금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안내해

교육 현장의 청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권익위 전문관이 △주요 쟁점별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메신저·문자·소셜미디어(SNS)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청탁사례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명확한 직무 수행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실시간 질의에도 청탁금지법 제도를 총괄하는 권익위 전문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적용 쟁점과 혼선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행동강령책임관의 반부패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는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청렴소통 설명회를 우리 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역량 강화 기회로 삼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청탁금지제도가 교육 현장에 공고히 자리잡고, 우리 교육청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체험중심 산업안전 교육으로 예방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험중심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학교(기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가상 체험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현장에 적합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교육에는 도내 공립 초·중·고교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40명이 참여했으며,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감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기계설비·전기안전·응급처치·VR 체험 등 산업재해 상황 체험 교육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구성, 업무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5월과 하반기에도 관련 교육을 운영해 산업안전 예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산업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A.T PROGRAM (AI + Touch My Dream)

"내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검사"

M.I.T
마음지능검사
(Mind Intelligence Test)

- 1 100가지유형 기질검사
- 2 자기주도학습태도검사
- 3 강점지능검사
- 4 성품검사

M.E.T
마음에너지검사
(Mind Energy Test)

- 1 유전자지문적성검사
- 2 학업스트레스검사

With You Program
함께라면
(With You Program)

- 1 진로프로그램
- 2 소통프로그램
- 3 마음알아주기 프로그램

殷·東夷·韓民族 이야기

도깨비, 도철, 독기, 그리고 동이족의 기억

□ **천 년을 넘어 이어진 전사의 기운**
우리가 아는 도깨비는 어떤 모습일까? 뿔이 달린 장난꾸러기, 씨름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며, 때로는 사람과 흥정을 벌이는 친근한 존재로 떠올린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도깨비의 뿌리는 훨씬 더 묵직하다. 단순한 민속 괴물이 아니라, 고대의 전쟁신과 맞닿아 있는 상징이자, 동이족의 기억을 품은 형상이다.

□ **맞힌 이름, 도깨비의 기원**
도깨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갑골문과 청동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고대 중국의 제기와 무기 위에는 무시무시한 얼굴 문양이 새겨져 있다. 바로 도철(饗養)이다. [그림 27] 도철 문양 참조) 크고 날카로운 눈, 튀어나온 송곳니, 뿔 달린 이 형상은 보는 이에게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이 도철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전쟁과 제사의 기운을 상징했고,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전사의 얼굴이었다. 중국 고대 기록에 따르면, 치우(蚩尤)라는 전쟁의 신은 황제 현원과 맞서 싸운 전사였다. 그의 투구에는 소머리와 뿔, 날카로운 송곳니가 장식되어 있었고, 이 형상이 훗날 도철 문양으로 정착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는

도깨비는, 그 뿌리를 따라가면 전쟁의 피비린내와 무기, 청동기의 도철에 닿아 있는 셈이다. 두려움의 상징이 시간이 지나 민속 속 귀물로 변신한 것이다.

□ **전쟁의 깃발, '독기'**
치우와 동이족은 전쟁터에서 늘 독기(葷旗)라는 깃발을 세웠다. 독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다. 깃대 끝에 괴이한 형상을 조각하고, 그 아래에 깃발을 늘어뜨렸다. 사람의 얼굴, 짐승의 머리, 괴물의 형상이 독기의 꼭대기를 장식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바람과 전운을 잡치고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장치였다. 깃발은 멀리서도 잘 보였고, 그 위의 괴물 얼굴은 전사의 군기를 고취시키며 적군에게 공포를 심었다.

이 전통은 동북아시아의 여러 민족으로 이어졌다. 몽골군 역시 독기와 유사한 군기를 사용했고, 원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통이 한반도에도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정조 시기의 궁중 행렬을 담은 '화성능행도'를 보면, 화려한 깃발 행렬 속에 독기가 등장한다. 다만 이 시기의 독기는 전투 장비라기보다 왕권과 의례를 상징하는 장식물로 변해 있었다. 전장

[그림 27] (鬼, 畏) 자의 형성과정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鬼				鬼
畏				畏



의 공포에서 왕실의 권위로, 상징의 의미가 변모한 것이다.

□ **'도깨비'라는 이름의 비밀**
그렇다면 '도깨비'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설이 있지만 흥미로운 가설 하나가 있다. 바로 '도철(饗養)'과 '귀(鬼)'가 합쳐졌다는 것이다.

도철의 '도'와 귀신의 '귀'가 합쳐져 '도귀비'→'도깨비'로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즉, 고대 전쟁신의 상징이 민간 신앙 속 귀물 이미지와 섞여 탄생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언어학적으로도 음운 변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다.
이 이름의 변천은 도깨비 이미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투와 무용의 상징에서, 민속 속 장난꾸러기로 변신한 과정 말이다. 도깨비가 씨름을 좋아하고, 쇠붙이를 잘 다루며, 때로는 흥정을 벌이는 성격을 띠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사의 기운이 민속 속에서 장난기와 융합한 것이다.

□ **치우, 전사에서 민속까지**
다시 치우로 돌아가 보자. 중국의 역사서에 치우는 종종 '반역자'나 '야만인'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북방과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오히려 동이족의 대표적 영웅이었다.

소머리, 뿔, 날카로운 이빨을 장식한 그의 모습은 전쟁의 신, 혹은 강력한 부족의 수장을 상징했다. 이 형상이 도철 문양으로, 독기 장식으로, 그리고 민속 속 도깨비의 이미지로 변해 내려온 것이다.

결국 도깨비는 단순한 민속 괴물이 아니라, 동이족 전사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다. 패자의 기록이자 동시에 살아남은 자의 기억인 셈이다.

□ **전사의 기억, 민족의 추억**
오늘 우리가 도깨비를 이야기할 때, 흔히 장난꾸러기나 민속 신앙의 대상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잊힌 전사의 기억이 숨어 있다. 갑골문과 청동기에 새겨진 도철, 전쟁터의 독기, 그리고 치우의 형상이 그것이다.

이 기억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민속 속 도깨비로, 민담 속 장난꾸러기로,

아이들의 놀이 친구로 남았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은 친근함으로, 공포의 전사는 민속의 장난꾸러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알면 도깨비는 단순히 웃음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동이족의 기억을 잇는 상징이고, 민족의 추억을 담은 문화적 자산이다.

□ **맺으며**
도깨비, 도철, 독기. 세 단어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모두 동이족의 흔적을 품고 있다. 도깨비를 연구하는 일은 단순한 민속학이 아니다. 그것은 패자의 기록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기억을 복원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도깨비를 만날 때, 씨름판에서 씨름을 벌이는 장난꾸러기를 떠올리든, 민화 속에서 금빛 방망이를 휘두르는 귀물을 떠올리든, 그 뒤에 겹겹이 쌓인 전사의 기억을 함께 떠올려 볼 일이다. 도깨비는 그저 웃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천 년을 넘어 이어진 전사의 기운이기 때문이다.



□ **육우권**
◇ 교육연합신문 주필

전재학의 교육칼럼

지역의 기억과 문화를 교육으로 잇는 문화강국

“교육이 지역의 기억과 문화와 손을 맞잡을 때, 교실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필자에게 매일 저녁 KBS '6시 내고향'과 매주 토요일 늦은 오후 시간에 방송되는 '동네 한 바퀴'는 은근히 기다려지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는 빠른 이동과 소비가 일상이 된 시대에, 한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또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 속에서 만나는 지역의 장인과 명장들은 화려한 성공담의 주인공만은 아니다. 그들은 한 자리를 지키며, 사라져 가는 우리의 토종 기술과 생활 문화를 묵묵히 이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으며, 또 전하려고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다.

이 질문은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강조해 왔다. 지역 연계 교육과정, 학교·마을 협력, 학교 밖 학습 자원의 활용은 이제 선인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과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역은 여전히 '부가적 체험 공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역의 장인과 무형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해 전통 기술과 예술을 보호하고 전승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축적한 지식과 태도를 몸으로 간직하고 있는 살아 있는 교육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지 장인의 작업에는 자연 재료의 과학적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이 담겨 있고, 옹기 장인의 삶에는 지역 산업과 생활사의 변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러한 자원은 역사·국어·과학·미술·기술·진로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며, 교과 간 경계를 넘는 융합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지식을 암기하는 학습자가 아니라, 학문의 경계와 맥락을 이해하는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교육의 방

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전통문화와 무형유산 교육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창의적 사고를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 교육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미래 역량을 기르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실행이다. 지역(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인적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 문화 자원과 학교를 연결하는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업 자료 개발, 교원 연수, 행정적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역시 선

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야만 지역 자원이 일회성 체험이나 행사로 소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 내용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조국의 광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교육자였다. 그는 평생 자신의 소원이 우리가 세계 속의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는 현대에 와서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생산량이나 수출 규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시민을 길러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KBS의 두 방송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각 지역의 장인과 명장의 삶은, 그 출발점이 멀리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교육이 지역의 기억과 문화와 손을 맞잡을 때, 교실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교육부 정책이 진정으로 현장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문화강국의 길은 교육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선남중학교 교장
◇ 前세종고교·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윤용의 100세 칼럼

지끈거리는 편두통, 뇌와 경추의 신경학적 연결고리로 풀어내기

1. **뇌신경이 보내는 경고음, 편두통의 원인** - 편두통(migraine)은 단순한 두통을 넘어, 뇌신경계의 비정상적인 흥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신경 혈관 질환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일측성 또는 양측성의 박동성 통증이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발생하며, 구역질, 구토, 빛 번짐(광과민), 소리 공포증 등을 동반합니다.
병태생리학적으로 편두통의 핵심은 삼차신경혈관 시스템(trigeminovascular system)의 활성화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외부의 자극으로 삼차신경이 흥분하면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산화질소(NO) 등 혈관 활성 신경펩타이드가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수막 혈관을 확장시키고 비만 세포를 탈립시켜 국소적인 신경성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통증 신호가 증폭되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원인이 됩니다.

2. **진통제만으로 편두통 관리가 힘든 이유** - 현재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에는 트립탄(Triptans),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디탄(Ditans), 게판트(Gepants) 등이 사용되며, 예방 치료에는 CGRP 단일클론항체(mAbs)와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이 처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 치료로 잘 해결되지 않는 편두통도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 30~40%의 환자는 위와 같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는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 약물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장관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의 복용 중단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증 조절을 위해 급성기 진통제를 과용할 경우, 오히려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악화되는 '약물과용 두통(medication overuse headache)'으로 만성화될 위험도 가파르게 높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편두통과 밀접하게 얽힌 '경추기원성 두통(cervicogenic headache)'** - 최근 경추의 관절, 디스크, 인대 또는 근육의 병리적 이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추기원성 두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편두통 관리에서 중요한 이유는 편두통 환자의 최대 90%가 목 통증을 동반하여, 임상적으로 두 질환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중첩은 삼차경추복합체(trigeminocervical complex)라는 신경 구조로 설명됩니다. 상부 경추에서 기원하는 구심성 통증 신경과 뇌신경인 삼차신경의 구심성 섬유는 뇌간에서 융합됩니다. 이 때문에 경추부의 통증 신호가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편두통 발작이 경추부의 방사통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4. **편두통에 대한 효과적 대안: 한약, 침, 추나 치료의 현대 과학적 근거** - 근래에 이와 같은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학 치료에 대한으로 조망받고 있으며, 현대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그 효과와 작용기전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수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종합한 우산 고찰(Umbrella review) 연구에서는 침 치료가 기존 약물 치료와 비교해 부작용이 현저히 적으면서도 편두통 발생 일수와 통증 강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한 커넥톰(connectome) 기반 예측 모델 연구에서는, 편두통 환자에게 4주 간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피질하-소뇌 네트워크 간의 기능적 연결성 조절을 통해 진통 효과와 장애 개선이 나타남이 입증되었습니다. 더불어, 편두통의 경추성 유발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상부 경추 및 흉추에 이루어진 추나와 침점자극술 병행치료는 단순 수기치료 및 운동보다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3개월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들 효과는 생물학적으로 침 치료가 보이는 CGRP 및 NO 방출 억제와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조절을 통한 신경 염증 완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천궁(Chuanxiang rhizoma), 천마(Gastrodia rhizoma), 백지(Angelicae dahuricae radix) 등 두통에 널리 활용되는 한약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합처방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성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들 한약의 주요 성분은 혈액-뇌장벽(BBB)의 투과성을 안정화하고, CGRP 및 NF-κB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여 중추 및 말초의 통증 감각을 차단함으로써 편두통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 **약물 의존을 줄이는 일상 속 편두통 자가 관리법** - 성공적인 편두통 관리를 위해서는 임상적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 **식이 및 영양 관리** : 금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저하를 유발해 편두통의 촉발 인자가 되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 **운동 요법** : 규칙적인 중등도 유산소 운동 및 저항성 근력 운동은 뇌의 베타-엔돌핀 및 BDNF 수치를 높여 편두

통 빈도와 강도를 줄입니다. 단, 두통의 발작기에는 신체 활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 **근육 이완과 스트레칭** : 경추부와 두피에 대한 가벼운 자가 이완 및 스트레칭은 통증 유발 물질인 Substance P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두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잠은 편두통은 삶의 질 전반을 위협하지만, 진통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뇌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추의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는 과학적 한의 치료와 올바른 생활 관리를 병행하여, 지긋지긋한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옴생약 대표이사

한약, 경험서 '과학적 의약품'으로 진화 으뜸생약, 근거 기반 한의약 시대 연다

한약이 '경험의 영역'을 넘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의약품으로 재정의되는 흐름의 중심에 으뜸생약이 있다.

한약 전문 기업 으뜸생약은 전통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 지표 성분 분석, 안전성 검증,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웅담, 침향, 우황 등 고부가가치 한약재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의약품 원료 관리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한약이 단순 건강보조 식품이 아닌, 명확한 치료 목적을 가진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제약 산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세계 의료계와 제약 산업에서는 합성 의약품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천연물 기반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복합적인 병인에 대해 다중 표적(multi-target)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연물은 차세대 치료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 보건기구 역시 전통 의학의 표준화와 산업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체계적인 한약 관리 시스템을 갖춘 선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 웅담·침향·우황... 과학이 입증한 전통 약재의 가치

으뜸생약이 주목하는 핵심은 단순 유통이 아닌 약재의 과학적 검증과 재해석이다.

먼저 웅담(Ursi Fe)은 과거 윤리적 논란과 달리 현재는 국제 규범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관리된다.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에서는 곰 개체 수 조절 정책에 따라 포획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웅담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절차를 거쳐 유통된다.

으뜸생약은 이처럼 합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한 원료만을 확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약리적 측면에서도 웅담은 재조명되고 있다. 주요 성분인 UDCA는 간 기능 개선, 담석 예방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신경 보호, 항염 작용,

안전성 검증·데이터 기반 한약재 관리 체계 구축 h-GMP 기반 품질관리를 의약품 수준 신뢰 확보



웅담

세포 사멸 억제 효과까지 확인됐다.

또한 대사질환 영역에서는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진행 억제 가능성이 제시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침향(Aquilariae Lignum)은 수목이 외부 스트레스에 반응해 생성한 수지 성분이 핵심이다. 품질은 수지의 형성과 화학적 조성에 의해 결정되며, 주요 활성 성분인 세스퀴테르펜과 크로몬 화합물은 항염, 항균, 진정, 항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최근 식품 시장에서는 인공 수지 주입 등 위조 제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으뜸생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지표 성분 분석을 통한 진품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황(Bovis Calculus) 역시 현대 연구를 통해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염증성 및 신경계 질환에 사용된 우황은 최근 연구에서 허혈성 뇌졸중 모델에서 뇌 손상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

또한 혈뇌장벽 보호, 신경 염증 억제, 시냅스 가소성 회복 등 다양한 작용 기전이 확인되며 인지 기능 개선 및 뇌 질환 치료 소재로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간 보호 및 대사질환 개선 효과까지 보고되며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침향

으뜸생약은 이러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원 검증과 성분 분석을 통과한 원료만을 선별 공급하고 있다.

■ h-GMP 기반 한약 관리... '의약품'으로서의 기준 확립

한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은 이원화된 한약재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다.

일반 유통 한약재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이들 약재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h-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돼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는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이산화황 등 다단계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다.

또한 약전 기준에 미달하는 약재는 즉시 폐기된다.

으뜸생약은 이 기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지표 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 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약재를 정성적 개념이 아닌 정량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소다.

■ 원외탕전실·CMO 확산... 산업 구조 고도화

정부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한약의 표준화와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 조제·탕전 과정을 의약품 제조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인증을 받은 시설은 원료 입고부터 조제,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약재 위탁개발생산(CMO) 방식이 확산되면서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으뜸생약은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핵심 원료 공급자이자 연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데이터 기반 한약 산업... 글로벌 진출 고도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 한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데이터와 표준화에 달려 있다.

으뜸생약은 단순 유통을 넘어 약재의 성분, 안전성, 품질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거 중심 의학(EBM) 기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방 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에 일관된 품질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나아가 지표 성분 데이터를 활용한 유효 성분 연구 지원, 기능성 소재 개발 등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치료 목적 의약품뿐 아니라 예방의학 및 건강 증진 시장까지 아우르는 전략이다.

■ "한약은 의약품"... 산업 인식 전환의 중심

한약은 더 이상 전통에 머무는 분야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 데이터 기반 관리, 글로벌 기준 대응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으뜸생약은 한약재를 '농산물'이 아닌 '치료용 의약품 원료'로 다루는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한약이 경험에서 과학으로, 전통에서 산업으로 확장되는 지금, 으뜸생약의 행보는 한국 한의약이 글로벌 천연물 의약품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우수제품
 성능 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 케이시스 스마트 자동화 공장

SMT라인

아웃도어 라인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600건 이상 구축'

14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소평들 '나라장터종합소평들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북원여자고등학교 입구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맘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학산여자고등학교 강당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나라장터종합소평들 등록제품

[전국 및 글로벌 지사·공장·물류]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캐년리움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복왕동로 43 도안리브스그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청담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빌BC식산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정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 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 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캐년리움 IT타워 B110호

제품문의
1600 - 6187